

폭염 대응 종합대책 추진

익산시, 그늘막 설치·무더위 쉼터 500개소가동 등 종합 상황관리

익산시가 9월30일까지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8일부터 폭염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3개 반 51명으로 구성된 '폭염TF팀'을 꾸리고 유관 기관과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종합 상황판타에 들어갔다.



특히, 보행자가 많은 사거리 등 시내 곳곳에 스마트 그늘막 18개소를 포함해 167개소 그늘막을 운영하고 냉방기가 구비된 급유기관, 경로당 등 무더위쉼터 500개소를 가동 중이다.

시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 이상 2일 이상 지속되는 폭염특보 발효시에 4대의 살수차로 시내 노면 35km 살수

단, 방문건강관리간호사 등이 안부를 살핀다.

전 시민대상 폭염 행동요령을 문자 메시지를 수시로 전송하는 등 철저한 대비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현을 시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집중호우에 이은 폭염이 지속되면서 지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도 건강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8월 2일까지 익산에서 발생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는 17명이며 사망자는 없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는 3일 참신한 아이디어로 시정을 혁신하는 정책 연구모임인 '정책 반올림 제3기' 발대식을 했다고 밝혔다.

'관행은 내리고 혁신은 올리고'

군산시, 반올림 3기 출발... 정책 스터디 등 운영·아이디어 발굴

군산시는 3일 참신한 아이디어로 시정을 혁신하는 정책 연구모임인 '정책 반올림 제3기' 발대식을 했다고 밝혔다.

정책 반올림은 새로운 관점으로 혁신을 올리고 불필요한 관행은 내리는 '시정 혁신과제를 연구하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아이디어 발굴단'이다. 이번 제3기는 성별 부서, 직렬 등을 고려해 임용 5년 이하의 8~9급 공무원 13명으로 구성됐다.

정책 반올림은 새로운 관점으로 혁신을 올리고 불필요한 관행은 내리는 '시정 혁신과제를 연구하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아이디어 발굴단'이다. 이번 제3기는 성별 부서, 직렬 등을 고려해 임용 5년 이하의 8~9급 공무원 13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1~2기 정책 반올림은 새내기 MZ세대 공직자들의 공직생활 관련 주요 관심사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설문 조사를 진행해 신규 세대가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참신한 정책 발굴을 위해 분임 별 정기모임, 전체 외부기관과의 조율을 진행해 왔다.

또한 △우수 혁신기관 벤치마킹 위크숍 △간부 공무원과 간담회를 통한 세대 간 소통의 장 △혁신 마인드 함양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정책 경영 대회를 통한 발굴 정책 시민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조직 문화를 유연하게 하고 '군산 시간여행 축제 청년 서포터즈 운영 등 신규 시책을 발굴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반올림 운영 자체평가를 통해 3기는 신규 정책 발굴에 대한 부담은 덜고, 잠재적 정책 기획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정책 발굴 이론 교육과 스터디, 토론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 반올림 활동이 실무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보다 생산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3기 발대식에서는 시정 역점 및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시정 전반을 소개하고 자치행정국장과 함께 시정 혁신 및 지역 발전에 대한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안창호 자치행정국장은 "반올림 1~2기가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주고 참신한 정책이 발굴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일자리대상 고용부 장관상 2년 연속 수상

익산시가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평가에서 2년 연속 수상하며 익산형 일자리 정책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인정 받게 됐다.

시는 지난 2일 고용노동부 주관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지난해 특별상에 이어 우수상 기관표창과 함께 인센티브 7천만원을 확보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공표하는 행사이다.

시는 대한민국 제1호 익산청년시청, '취업박람회' 정례화 등을 통해 연간 고용률을 2021년 30.1%(1만5700명)에서 지난해 33.8%(1만7200명)로 3.7%로 상승시켜 청년취업정책 실효성에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새만금 잼버리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군산시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1일까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장에서 군산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인 '군산시간여행마을 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행사에서 군산 통합브랜드 '새들군산'과 군산 농특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며, 대야농업협동조합(조합장 한정수)과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어울림(대표 장병수)이 참여해 쌀, 누룽지, 콩, 가공품, 곡물 시리얼 등에 대한 시식과 판매가 이뤄진다.

홍보·판매장은 참가자와 일반 관광객 모두 출입 가능한 잼버리 델타 구역에 마련됐으며, 참가국 158개국의 청소년과 관계자, 관광객 등 4만여 명에게 군산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건강 강한 먹거리를 알리는 계기가 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오감만족, 가성비 짱!' ... 익산구시장 먹거리 행사

4일 개최... 다양한 먹거리·흥겨운 공연·다e로움 카드 10% 추가 적립 혜택

익산시는 구시장과 남부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4~5일 이틀간 매일 저녁 6시부터 남부시장 광장 일원에서 '누구나 먹방! 익산구시장 먹거리 축제'를 개최한다.

익산 구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과 상인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축제는 구시장과 인근 남부시장을 연계해 전통시장 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며 축제 의미를 높였다.

구시장 먹거리 축제에 남부시장 상인들도 적극 동참하기로 하면서 개최 장소는 남부시장 광장으로 결정했다. 여기에 중앙시장 청년를 입점 상인들이 참여하는 프리마켓도 함께 운영해 전통시장 콜라보 형태로 축제가 운영

된다.

축제에서는 구시장 및 남부시장의 대표 먹거리인 통닭은 물론 상인회와 부녀회에서 직접 현장에서 조리하여 선보이며 가성비 높은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 시장 먹거리의 진수를 보여 준다.

특히 하이테크로와 협업을 통해 치킨의 단점인 시원한 주류를 축제 방문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수시로 진행해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흥을 더욱 돋울 예정이다.

여기에 약조를 이용한 건강주(酒) 만들기 등 체험부스와 함께 아동 동반 고객에게는 팝콘 무료 증정을 비롯해

온누리상품권 경품행사 등이 진행된다.

또한 축제기간 소비축진을 위해 먹거리 축제 기간 중에 다e로움 카드 이용 시 10% 추가 적립 이벤트까지 제공하여 지역화폐 다e로움으로 최대 3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 카드 및 제로페이와 포함한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으로 이용객들의 결제 편의성을 높였다.

유근우 구시장 상인회장은 "가격, 맛, 재미 등 3박자를 고루 갖춘 먹거리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새만금 잼버리 국제운영 요원 금강미래체험관 방문

2023년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국제운영 요원(IST, International Service Team)들이 군산 금강미래체험관(이하 체험관)에 방문해 기후 위기와 관련된 각종 체험활동에 참여하며 화제가 되고 있다.

체험관은 금강하구에 있는 기후 위기 체험 교육 시설로 지난 5월 새롭게 단장, 각종 전시관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후 행동 실천 방법 알람을 시작으로 생태환경 교육도시로서의 발돋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대화

생과 지도자들로 구성된 국제운영 요원(IST)들을 위한 영의 프로그램 하나로 3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매일 30여 명씩 총 2,240여 명의 세계스카우트 운영 요원들이 체험관을 방문한다. 생태환경 기후 위기 체험 및 전시관을 관람, 전 세계인이 함께 모여 지구 생태환경 지킴이로서의 의식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체험관은 이번 IST 방문을 위해 전시내용을 번역, 영문 리플릿을 별도로 제작했으며, 체험 프로그램 또한 별도로 기획

했다.

도착방법로 시차를 두고 전시 관람과 체험을 유도해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했으며 체험장 곳곳에 영어안내문을 부착해 언어와 풍습이 다른 세계인들이 전시 및 체험을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체험 기간에 주요 진행 프로그램으로는 분관 전시관 관람, 캘리그래피 손수건 만들기, 친환경 비누 만들기, 태양광 조리기 체험, 물 체험장의 큐드럼 만들기 등과 조류관찰 등이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익산시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가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300만원이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 18~30세 청년이며 올해 1월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

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등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다.

모집인원은 총 940명으로 예산 범위 내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 특성상 실제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가능하며, 동일 지자체에 한하여는 2년간 신청이 제한된다.

/익산=이재훈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